

중세 유럽의 팽창과 십자군 전쟁

[11세기 유럽의 팽창]

-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크리스티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 ~ 1492) 전개
- 삼포제 확산, 농업 생산력 증대, 인구 증가
- 독일인, 엘베 강 동쪽으로 식민 활동 전개

[십자군 전쟁(Crusades, 1096 ~ 1270)]

01. 배경

1) 표면적

-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 족의 압박**
: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 ~ 1118)의 구원 요청
: 시리아, **★예루살렘 점령(1071)**으로 성지 순례 박해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재위 1088 ~ 1099)
: **★클레르몽 공의회(1095)**에서 성지 회복 호소

2) 세속적

- 교황 → 로마 교회의 지배 영역 확대
- 왕·봉건 영주 → 새로운 영지 획득
- 상인 → 지중해 무역권의 장악

▶교황 우르비누스 2세의 십자군 전쟁 촉구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튀르크는 이미 여러분들 중 일부가 알듯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써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그리스도 전령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권유함으로써,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급히 멸절하고, 적절하게 크리스티교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프랑스사 문헌 집성』

02. 전개



- **★제1차 십자군(1096 ~ 1099)**
: 성지 탈환, **예루살렘 왕국 건설(1099)**
- 제2차 십자군(1147 ~ 1149)
: 중도 회군
- 제3차 십자군(1189 ~ 1192)
: 아이유브 왕조의 예루살렘 장악
: 살라딘 對 리처드 1세(재위 1189 ~ 1199)
- **★제4차 십자군(1202 ~ 1204)**
: 베네치아 상인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라틴 제국 건설(1204)**

03. 결과(★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 교황권의 약화 → 왕권 강화
- 제후, 기사 계급의 몰락 → 장원 경제 체제의 동요
- 동방 교역 활성화 →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번영(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 북서부 유럽 유입

중세 유럽의 경제적 변화

[상업과 도시 발달]

01. 상업 발달

- 봉건제 정착,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잉여 농산물 증가
- 자금자족적 장원 경제 탈피
↳ 영주의 성곽, 교통의 요지 등에 시장 출현

02. 도시의 성장

-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원거리 무역 발달
: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 발달
- 13세기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Hamburg), 뤼베크(Lubeck) 등 도시 성장
: ★한자(Hansa) 동맹 결성(1241) → 도시 동맹, 자체의 법률, 군대 보유
- 네덜란드 플랑드르(Flandre) 지방의 교역 발달
- 교역의 확대



- (가) [_____] 교역권
: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 뤼베크
: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방
: 한자 동맹 결성(1241)
↳ ★발트 해, 북해 연안의 무역 독점
- 내륙 교역권
: 지중해 교역권 ~ 북유럽 교역권 연결
: 대규모 정기 시장 형성 → ★상파뉴 정기 시장
- (나) [_____] 교역권
: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번영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

[중세 도시의 성격]

01. 초기 도시

- 봉건 영주의 간섭 → 도시민에 대한 행정과 사법권,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행사

02. 자치 도시 성장

- 도시 시민들이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에 대항
-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도시법 제정, 시의회 구성, 재판·징세·예산권 행사
- ★자유 시민(Bourgeois) 성장
: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이브빌 시 특허장(1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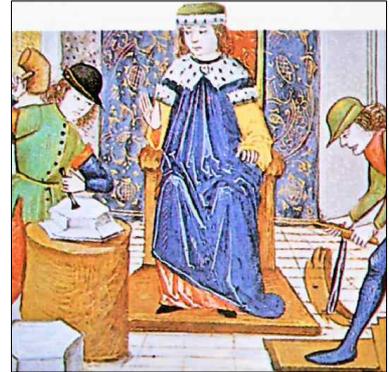
짐은 아브빌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을 승인했노라. …… 짐의 도시 아브빌이나 폰티 외 지방의 다른 도시들에서 그 도시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 도시들이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금이나 부조금 등 어떤 종류의 특별세도 시행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행되거나 강요되거나 물리거나 부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세 유럽의 경제적 변화

[길드(guild)의 조직과 특징]

01. 성립

- 상인, 수공업자들의 경제 활동 공동체
 - :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 : 생산과 교역 활동 통제
- 상인 길드
 - : 독점적인 상업 활동, 도시 행정 운영 장악
- 수공업자 길드
 - : 상인 길드에 대항해 결성, 도시 행정 참여
 - : 장인(master), 직인(journeyman), 견습공(apprentice)으로 구성



<장인 · 견습공>

02. 특징

- ★길드의 폐쇄성
 - ↳ 자유로운 상공업 발달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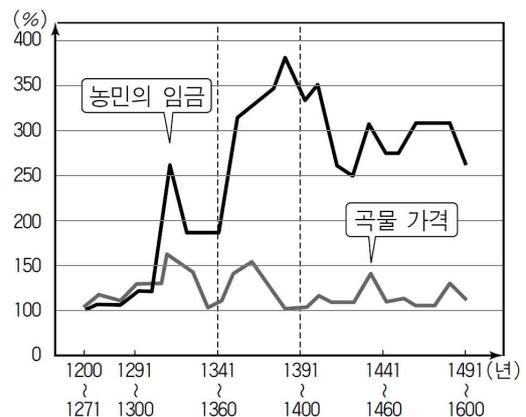
[장원의 해체]

01. 화폐 경제의 발달

- 지대 방식 변화
 -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 · 화폐 지대 요구
- 곡물 가격 상승
 - : 농노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02. 농민의 처우 개선

- 농노의 부역 의무 탈피
- 14세기 중엽 흑사병 유행(유럽 인구의 1/3 감소)
 - : 흑사병의 경제학 → 노동력 감소로 농민의 임금 상승



<농민 임금과 곡물 가격(영국)>

03. 농민 반란

-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
- 각지의 농민 반란 → 종교 개혁 운동과 연계
- ★자크리[Jacquerie, 자크(Jacques)의 집합명사]의 난(프랑스, 1358)
-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1381)
 - : 농노제 폐지 주장, 성직자 존 볼(John Ball)의 후원



▶ 길드(guild)

① 중세 유럽에서 장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견습비를 내고 스승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3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견습 기간**이 끝나면 **직인**으로서 장인의 곁을 떠날 수 있으며 임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게와 원료를 구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였고 견습공을 돌봐 줄 아내를 얻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을 제출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격을 습득한 장인은 길드에 가입하여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② “본 회원은 아침 해뜰 녘부터 저녁에 교회의 만종이 울릴 때까지 일하며, 그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 즉, 회원은 밤에 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다. 1차 위반 시에는 40펜스, 2차 위반 시에는 …… 시민이 아닌 자는 박차 작업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누구든지 도제를 7년 이상 고용해야한다. …… 어느 누구도 계약 기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직인을 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런던 박차(승마용 구두에 부착하는 쇠)공 길드의 규약

▶ 와트 타일러의 난(1381)

- 모든 사람은 부역과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사람의 농노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잉글랜드 왕국 내 모든 주·시·정기 시장 등에서 매매의 자유를 부여해야한다.
- 농노 보유지·영주 직영지는 1에이커 당 4펜스의 지대를 내고 경작할 수 있다. 또 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① 14세기에 영국의 영주들이 화폐 지대를 취소하고 부역제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농민들은 **와트 타일러**를 지도자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군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성직자 존 볼**은 영주·농노라는 신분 차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농노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이 더욱 많아져 그 수가 거의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② 반란의 직접 원인은 대(對)프랑스 전쟁(**백년 전쟁, 1337 ~ 1453**)의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15세 이상의 전 주민에게 부과한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세 봉건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원인이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농촌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영주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크게 진전되어 온 농노 해방 과정을 중지시키고, 차지인들에게 옛날의 무거운 노동 부역을 다시 부과하려 하였다. 자유 임금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임금 상승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탄압적으로 대응하여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크리스트교의 변화

[중세 후기 크리스트교의 변화]

01. 교황권의 쇠퇴

1)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종교적 열기 약화
- 교회 내부의 부패, 봉건 질서의 동요 → 왕권 신장

2) ★아비뇽 유수(1309 ~ 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對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 필리프 4세(재위 1285 ~ 1314)
: 삼부회 소집(1302) → 성직자에 대한 과세 승인
- 교황 클레멘스 5세(재위 1305 ~ 1314)
: 교황청의 아비뇽 이동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끌려가는 교황>

3)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

- 교황청이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정통성을 두고 대립
- 피사 공의회 개최(1409) → 새로운 교황(알렉산드르 5세) 선출, 3명의 교황이 동시 재위

02. 교회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움직임

1) 영국의 ★위클리프(1320 ~ 1384)

-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의 타락 비판
- 성서 기반 신앙, ‘성서에 교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 인간과 신의 직접적 관계 강조

2) 보헤미아의 ★후스(1372 ~ 1415)

- 성직 매매 등 교회의 세속화 공격
- 성서 지상주의 · 예정설(→ 칼뱅 계승)
-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농민 운동에 영향
- 종교 개혁의 선구적 역할



<회영 당이는 후스>

03. ★콘스탄츠 공의회(1414 ~ 1418)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재위 1411 ~ 1437)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
- 교회의 대분열 수습
: 위클리프 이단 규정 + 후스 화형, 교회의 개혁 움직임 저지
: 단일 교황(마르티노 5세)을 선출하여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시기	구분	내용
4세기	포교	① 313년, 밀라노 칙령 → 크리스티교 공인 ② 325년, 니케아 공의회 → 아타나시우스파 승인 ③ 392년, 크리스티교의 국교화(테오도시우스 황제)
5 ~ 10세기	왕권과 제휴	① 496년, 클로비스의 개종(아리우스파 → 아타나시우스파) ② 726년,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의 성상 숭배 금지령 ③ 756년, 피핀의 라벤나 지방 기증 → 교황령의 시초 ④ 800년, 카롤루스 대제 → 서로마 황제의 대관 ⑤ 962년, 오토 대제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
11세기	분열 · 왕권과의 대립	①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②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 ③ 1077년, 카노사의 굴욕 : 주교 서임권 문제, 그레고리우스 7세 對 하인리히 4세
11세기 말 ~ 13세기	교황권의 확대	①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 ② 1096년, 십자군 전쟁 시작(~ 1270년까지 7차례) ③ 1122년, 보름스 화약 → 교속 서임권 투쟁 일단락 ④ 1198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 ~ 1216) :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 교황권의 전성기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 ~ 1204) : 존 왕 파면(1209)
14 ~ 16세기	교황권의 쇠퇴	① 십자군 전쟁(1096 ~ 1270) 실패 ② 아비뇽 유수(1309 ~ 1377)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③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 :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의 대립 ④ 후스(1370 ~ 1415), 종교 개혁의 선구 ⑤ 콘스탄츠공의회(1414 ~ 1418) : 교회 대분열 수습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위클리프 이단 규정, 후스 처형 ⑥ 종교 개혁(1517) :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 콘스탄츠 공의회 선언(『수능 특강』, p.84)
 첫째,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구성하며 가톨릭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 대분열의 종식, 신의 교회를 머리에서 팔다리나 몸까지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의회에 복종해야만 한다.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화

01. 왕권의 강화

1) 배경

- 교황권의 쇠퇴
- 봉건 영주와 기사의 세력 약화
-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과 협조
- : 국가 재정 지원, 국왕의 관리로 봉사, ★신분제 의회 참여

2) 내용

- ★관료제 · 상비군 도입(→ 필요 재원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세금으로 충당)
-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

02. 영국의 발전(왕권 강화와 의회 정치 발전)

1) ★노르만 왕조(1066 ~ 1153)

- 강력한 왕권 유지

2) 플랜태저넷 왕조(1154 ~ 1399)

- 앙주 백작 헨리 2세 개창 → 리처드 1세(재위 1189 ~ 1199)의 왕위 계승
- 존 왕(재위 1199 ~ 1216)
- : 무거운 세금 부과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 ★대헌장(Magna Carta, 1215) 승인

제1조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며, 그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음을
집과 집의 후계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바이다.
제12조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은 집의 왕국 전체의 자문에 의하지 않고는 집의 왕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모든 자유인은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박탈·추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다.

- 헨리 3세(재위 1216 ~ 1272)
: 존 왕의 아들, 대헌장의 원리 무시
: 시몽 드 몽포르의 반발 → 귀족과 성직자 및 시민의 대표 소집, 시몽 드 몽포르 의회(1265)
- 에드워드 1세(재위 1272 ~ 1307)
: 모범 의회 소집(1295) → 신분제 의회의 기틀 마련
- ★에드워드 3세(재위 1327 ~ 1377)
: 카페(Capetian) 왕조 혈통[에드워드 2세(父) ~ 프랑스의 이자벨라(母)]
↳ 프랑스 왕위 계승에 대한 주장 재개 → ★백년 전쟁(1337 ~ 1453) 유발
: 귀족원(성직자·귀족), 서민원(기사·시민 대표) 형성
↳ 양원제 의회 확립(1341)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화

03. 프랑스의 발전

- 카페 왕조(987 ~ 1328) : 전형적인 봉건 정치 체제
- 루이 6세(재위 1108 ~ 1137) : 파리 귀족과의 교전을 통해 왕권 신장
- ★필리프 2세(재위 1180 ~ 1223)
: 존엄 왕(Augusute), 존 왕(英)과 싸워 승리, 제4차 십자군 전쟁 주도
- ★필리프 4세(재위 1285 ~ 1314)
: 교황과 맞서 삼부회 소집(1302), 아비뇽 유수와 교황 통제

04.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

1) ★백년 전쟁(1337 ~ 1453)

- 영국 對 프랑스 → 플랑드르 지방의 확보,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
-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 주장[1328(샤를 4세의 죽음) · 1337]
- 초기 영국 우세 → ★잔 다르크의 활약(오를레앙 전투, 1429) → 프랑스 승리
- 프랑스 → 통일된 영토 확보, 국민 의식 고양,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2) ★장미 전쟁(1455 ~ 1485)

- 영국 내의 왕위 계승 문제
- 랭커스터 왕가(흑장미) 對 요크 왕가(백장미) → 요크 왕가 승리, 에드워드 4세 즉위
- ★튜더 왕조 개창(1485 ~ 1603)
: 헨리 튜더(랭커스터 왕가)와 엘리자베스(요크 왕가)의 혼인
: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귀족 세력의 몰락 이용, 절대주의의 기초 마련

05. 독일 지역

- 신성 로마 제국(962 ~ 1806) 황제의 명목상 통치
- 봉건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 대공위 시대(1256 ~ 1273) → 독립적 공령들의 집합체
: 황금문서(1356) → 7선제후(7명의 유력한 제후, Domini Terrae)의 황제 선출 권한 인정



▶ 황금문서(Goldene Bulle)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7명의 선제후가 선거로 뽑는다.
- 선거에 참여하는 선제후들은 재판권, 광산 채굴, 화폐 주조, 관세 징수 등의 특권을 가진다.
- 제후의 영지는 말아들에게 일괄상속하고, 영지에 대한 제후의 지배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재위 1347 ~ 1378)가 발표한 제국법이다.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여 **금인칙서(金印勅書)**라고도 한다. 7선제후가 황제 선거권을 독점하여 제국의 실권이 지방 세력의 수중에 넘어가 독일 지역의 분열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에 역행**)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화

06. 이탈리아 반도

-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대립으로 통일 국가 형성 지연

07. 이베리아 반도

- ★레콘키스타(Reconquista, 718 ~ 1492)
- 12세기 아라곤, 카스티야 등 강력한 크리스티교 국가 건설
- 에스파냐 왕국 성립
 - :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카스티야의 이사벨 결혼(세기의 결혼식, 1479)
 - :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 함락 → 통일 국가 완성(1492)
- 포르투갈
 -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1143)
 - : 해외 진출 확대와 인도 항로 개척(1498)
 - ↳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주역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영토 변화>

08. 러시아(『수능 특강』 기술 No!!)

- 9 ~ 13세기 키예프 공국(日 公國)
 - : 동슬라브족 지배
 - : 키릴 문자 사용
 - : 그리스 정교 수용
 - ↳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건설
- 13세기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의 지배



<성 바실리 성당>

- 모스크바 대공국(Moskovskoye Velikoye Knazhestvo)
 - 이반 3세(재위 1462 ~ 1505)
 - : 몽골 축출(1480)
 - :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 자처(→ 쌍두 독수리 문양)
 - : 모스크바[그리스 정교의 중심지, '제3의 로마']
 - 이반 4세(= 번개 왕, 재위 1533 ~ 1547 · 1547 ~ 1584)
 - : 차르(tsar) 칭호 사용(1547)
 - : 귀족 숙청으로 전제 정치의 기틀 마련
 - : 성 바실리 성당 축조(1561)
 - ↳ 비잔티움 양식, 몽골족 격퇴 기념

09. 폴란드(『수능 특강』 기술 No!!)

- 14세기 말 폴란드 + 리투아니아 대공국 → 폴란드 왕국 형성

개념 Check

- 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다.
- ② 제1차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하고 () 왕국을 건설하였다.
- ③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을 행사하였다.
- ④ ()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 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였으며, 이후 () 유수가 일어났다.
- ⑥ ()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를 화형에 처하였으며,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였다.
- ⑦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안의 영국령에 대한 지배권 문제 등으로 () 전쟁이 일어났다.

실전문제

01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그레고리우스 7세시여, 당신은 세속 권력에 맞서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신 진정한 사도입니다.

특히 서임권 문제로 당신께 도전한 (가)의 황제를 파문하신 일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 ① 황금문서를 공포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였다.
- ④ 뚝즈데이 북을 작성하였다.
- 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02

밀줄 친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마침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교황께서 다스리는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고트프루아를 국왕에 추대하여 여기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찌 우르바누스 2세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국왕이 되겠습니까?



- ① 로올라가 예수회를 설립한 배경을 검토한다.
- ② 피핀이 교황에게 토지를 기증한 목적을 살펴본다.
- ③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④ 위기에 처한 비잔티움 제국의 대응 방안을 조사한다.
- 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개칭된 이유를 찾아본다.

03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16-수능]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초기 프랑스에서는 흑사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졌고 게다가 국왕이 영국군에 포로로 잡히면서 전세는 프랑스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후반기에 등장한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는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 ① 대헌장이 발표되었다.
- ② 심사법이 제정되었다.
- ③ 수장법이 반포되었다.
- ④ 카페 왕조가 개창되었다.
- ⑤ 자크리의 난이 일어났다.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사회·문화
프랑크 왕국	1. 게르만 이동 : 훈족의 압박(원인), 서로마 멸망(결과) 2. 프랑크 왕국 ① 클로비스 : 아타나시우스파 개종(496)★ ② 카롤루스 마르텔 : 투르·푸아티에 전투(732)★ ③ 피핀 : 카롤루스 왕조 개창(751), 라벤나 기증★ ④ 카롤루스 대제 : 서로마 황제 대관(800)★ 3. 프랑크 왕국의 분열 ① 베르딩 조약(843), 메이르션 조약(870) ② 동프랑크(오토 1세), 신성로마제국 대관(962)	1. 원시 게르만 사회 : 카이사르 『갈리아전기』 : 토지 공유, 공동 경작, 종사(從士) 제도 2. 카롤루스 르네상스★ ① 라틴 문화 진흥 ② 궁정 학교 설립 ③ 학자 우대 정책(앨빈) ④ 로마 문화 + 게르만 문화 + 크리스티교 ↳ 서유럽 중세 문화의 기틀 마련
중세 봉건 사회	1. 봉건 사회 성립(9 ~ 10세기) ① 프랑크 왕국 분열, 노르만 족의 이동★ ② 로마의 은대지 제도 + 게르만의 종사 제도 : 쌍무적 계약 관계, 장원제도★ 2. 중세 교회의 발전 ① 프랑크 왕국 때 왕권과 밀착, 세속화 ② 수도원 운동(10세기 클뤼니 수도원 중심) ③ 성상 숭배 금지령(726) → 동서 교회 분(1054) ④ 카노사의 굴욕(1077) : 주교 서임권 분쟁★ ⑤ 보름스 협약(1122)★	①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 ② 봉건적·귀족적 성격, 보편적 통일 문화★ ③ 교부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④ 스콜라 철학(신학과 이성의 조화★)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1267) ⑤ 대학의 발달(학생·교수 조합, 자치 운영) ⑥ 고딕 양식(침탑, 스테인드글라스★) : 쾰른 성당, 노트르담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⑦ 기사도 문학★ : 『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비잔틴 제국	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 ② 황제 교황주의, 군관구제·둔전병제(7C)★ ③ 견직물 공업 발달, 동서 무역 번성 ④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십자군 전쟁의 배경★) ⑤ 오스만 튀르크에 멸망(신항로 개척의 배경)	① 콘스탄티노폴리스 중심 ② 『로마법 대전』(529)★ ③ 아야 소피아(Aya Sophia) 성당(537)★ ④ 그리스 정교, 그리스 어(공용어) ⑤ 르네상스 자극, 슬라브 문화권 형성★
중세 사회의 변화	1. 십자군 전쟁(1096 ~ 1270)★★ ① 셀주크 튀르크의 성지(예루살렘) 순례 박해(표면적) + 서유럽의 팽창(세속적 욕구) ② 제1차(성지 탈환, 예루살렘 왕국, 1099), 제4차(변질,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라틴제국, 1204) 2. 상업과 도시 발달, 길드 성립, 도시 동맹(한자 동맹, 1241), 지중해·북유럽 교역권 형성★ 3. 화폐 경제 발달, 지대 변화, 14세기 중엽 이후 흑사병 유행과 농촌 인구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 농민 처우 개선, 자크리(1358★)·와트 타일러의 난(1381★) 등 농민 반란 4. 교황권의 실추★ ① 아비뇽 유수(필리프 4세 對 보니파키우스 8세, 성직자 과세 문제, 1309 ~ 1377★) ② 교회의 대분열(세 명의 교황 난립, 1378 ~ 1417) ③ 위클리프(영국), 후스(보헤미아)의 개혁 운동[성서지상주의·예정설 → 칼뱅(1509 ~ 1564) 계승] ④ 콘스탄츠 공의회[후스 처형,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교회 대분열 수습), 1414 ~ 1418] 5. 왕권 강화 ① 영국 : 존 왕의 대헌장 승인(1215), 모범 의회(1295), 양원제 의회 성립(1341) ② 프랑스 : 필리프 4세, 삼부회 소집(1302) ③ 백년 전쟁(영 對 프, 플랑드르 영유권과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잔 다르크, 1337 ~ 1453) ④ 장미 전쟁(영국 內 왕위 계승 문제★, 1455 ~ 1485)	

인간 중심 사상의 부활 - 르네상스



[르네상스(Renaissance, **부활·재생**)]

01.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

1) 배경

- 14세기 무렵 봉건 사회의 붕괴와 중세 교회의 권위 실추

2) 성격

-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 창조 운동**
- 크리스트교, 봉건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개성 존중
- 문화 분야에서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확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01. 배경

-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잔존
-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과 문예 활동 장려
 - : 베네치아(Venezia, Venice)
 - : 피렌체(**메디치 가문의 후원**)
- 지식과 문화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
-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의 이탈리아 이주**
- 현세 중심적, 개인주의적 의식 구조 확산

02. 특징

-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
- **★인문주의(어원 humanitas, 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



<르네상스의 전파>

인간 중심 사상의 부활 - 르네상스

03. 인문주의자

단테 (1265 ~ 1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후의 중세인, 국민 문학의 선구자, 중세와 근대의 교량 역할 • 『신곡』 저술(이탈리아어), ‘모국어는 금(金)이요, 라틴어는 은(銀)이다.’
페트라르키 (1304 ~ 1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인문주의자 • 서정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 『칸초니에레』(서정시 모음, 1342 ~)
보키치오 (1313 ~ 1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카메론』(근대 소설의 효시, 1349 ~ 1353) : 흑사병을 배경으로 10명의 남녀가 교외 별장에서 10일간 나눈 이야기 :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 풍자
미키아벨리 (1469 ~ 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주론』(1513) :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정치를 종교·도덕에서 분리시키자고 주장 : 강력한 군주의 출현 주장 對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반(反) 마키아벨리론』

▶군주에게 필요한 지질

- 인색하다 또는 잔혹하다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 함정을 알아채는 여우의 꾀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자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04. 미술과 건축

1) 미술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신 표현(★**심미적 특징**)
- 유화, 캔버스 사용, 원근법 등 미술 기법 발전
- ★**자연과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표현**

보티첼리	1445 ~ 1510	• 비너스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 ~ 1519	•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1475 ~ 1564	• 최후의 심판, 다비드 상, 피에타, 아담의 창조
라피엘로	1483 ~ 1520	• 마돈나 상(성모상) • 아테네 학당(바티칸 성당, 문서의 방, 아카데미아)

2) 건축

- 르네상스 양식 발전
: 그리스의 열주(colonnade, 列柱), 로마의 아치, 돔(dome)
↳ 피렌체 성당(=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바실리카, 1436), 성 베드로 성당(= 산피에트로 대성당·바티칸 대성당, 1506)



<비너스의 탄생>



<모나리자>



<다비드>



<아테네 학당>

인간 중심 사상의 부활 -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01. 배경

-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 중심지의 대서양 이동 → 르네상스의 토대 마련

02. 특징

- ★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 발달
-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종교 개혁에 영향

03. 각국의 르네상스

네덜란드	반에이크 형제	1370 ~ 1426	• 유화 기법 개발
	에라스무스	1466 ~ 1536	• ★『 <u>우신예찬</u> 』(1511) :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 비판
영국	토머스 모어	1478 ~ 1535	• ★『 <u>유토피아</u> 』(1516) : 부조리한 현실 사회 비판과 이상 사회 묘사
	셰익스피어	1564 ~ 1616	• 『햄릿』·『오셀로』·『리어왕』·『맥베스』
에스파냐	세르반테스	1547 ~ 1616	• ★『 <u>돈키호테</u> 』(1605) : 몰락하는 기사 풍자

04. 미술

- 종교적·귀족적 소재에서 탈피해 시민이나 농민의 생활상 묘사
: 브뤼헬(농민의 춤, 농가의 혼례), 홀바인(초상화)



<농가의 혼례>

05. 문학

- 중세어(라틴어)에서 벗어나 각기 자국의 언어로 쓴 ★국민 문학 발달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01. 배경

-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의 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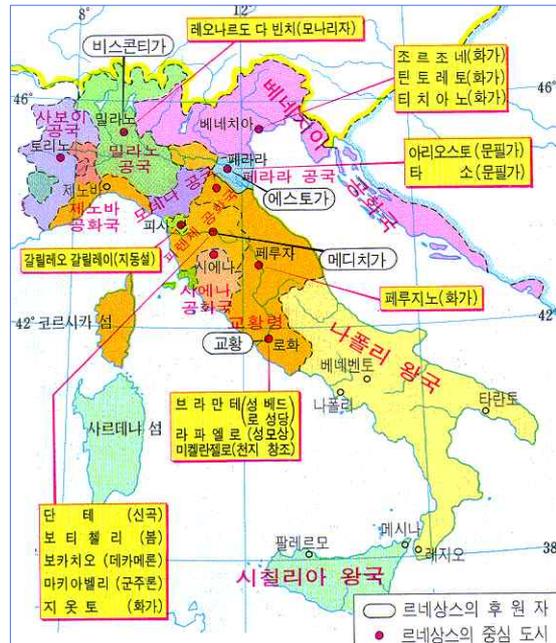
02.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외약	• 화승총·대포 사용 → 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상비군 등장 및 군사비 지출 증가
천문학	• 코페르니쿠스(1473 ~ 1543)의 지동설 주장, ★『 <u>천체의 회전에 관하여</u> 』(1543)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기초한 중세의 우주관 비판
인쇄술	• 구텐베르크(? ~ 1468)의 활판 인쇄술(1450년경) → 르네상스·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
니침반	• 원거리 항해에 이용 → 신항로 개척 등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 르네상스의 비교

	이탈리아(14세기)	북유럽(16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상업 발달 •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 로마의 문화유산 잔존 • 지중해 무역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교회의 권위 존재 • 봉건 제도의 영향력 유지 • 초기 크리스티교 연구 • 신행로 개척으로 대서양 무역 발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세속적 성향, 문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사회 비판적 성향, 사회 개혁 추구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뤼헬, 홀바인, 반에이크 형제



▶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지

- 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숙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숙녀들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또한 그녀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도 틀림없는 사실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숙녀분들이 때때로 허락해 주는 사랑에 넘친 입맞춤, 달콤한 포옹, 그리고 그 형언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정숙함에 조금이라도 도취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카치오, 『데카메론』
- ②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를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와 공물과 통행세 등으로써 세습 재산을 만들어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에 불타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과 불로 싸움으로써 크리스티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토막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 에라스무스, 『우신예찬』(수능 특강, p.93)
- ③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입니다.”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근대 인식의 각성 - 종교 개혁

[배경과 선구]

01. 배경

- 교회의 부패와 일부 성직자의 타락
- 알프스 이복의 인문주의자 → 성서의 정신에 따른 교회 개혁 주장
- 인간 중심적 사고와 합리적 세계관의 확산

02. 종교 개혁의 선구

1) 위클리프(1320 ~ 1384)

- ‘교회 재산을 세속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
- 교회 세속화 비판,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2) ★후스(1372 ~ 1415)

-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사제(司祭)
- 구령(救靈) 예정설 주장, 성서의 체코어 번역
-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처형(1415) → 후스 전쟁(보헤미아 왕국, 1419 ~ 1436)

[루터(1483 ~ 1546)의 종교 개혁(비텐베르크)]

01. 배경

- 독일 지역(교황의 쪼트, 교황청의 착취 집중)
-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 ~ 1521),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면벌부(Indulgence) 판매
↳ 루터, ★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

02. 주장

- 인간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것
- 신앙의 근거는 성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 부정), 성서의 독일어 번역

03. 전개

- 보름스 국회(카를 5세, ★1521)에서 루터의 법적 보호 지위 박탈
- 영방 제후들의 지지
- ★슈말칼덴 전쟁(루터파 對 교황파, 1546 ~ 1555)

04. 결과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1555)
: 제후와 도시 지배자들의 종교 선택권 인정 → 루터파 교회 인정
-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전파



<신피에트로 대성당(비티킨)>

근대 인식의 각성 - 종교 개혁

[칼뱅(1509 ~ 1564)의 종교 개혁(제네바)]

01. 전개

- 프랑스에서 루터 교회를 탄압하자 스위스로 망명하여 츠빙글리의 교리 연구
-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추진(1536)

02. 내용

- 성서 중심주의, 『크리스트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저술(1536)
- ★예정설 주장
: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 ★직업소명설
: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
- 장로제 도입
: 신도들의 자율적인 교회 운영
- 신의 의지에 반하는 세속 권력에 저항 → 시민 혁명 주도

▶성서 중심주의

신앙 중심주의라고도 한다. 신앙의 근거는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에 있다는 주장이다.

03.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과 전파

- 프랑스(위그노), 스코틀랜드(장로파), 잉글랜드(청교도), 네덜란드(고이센) 등지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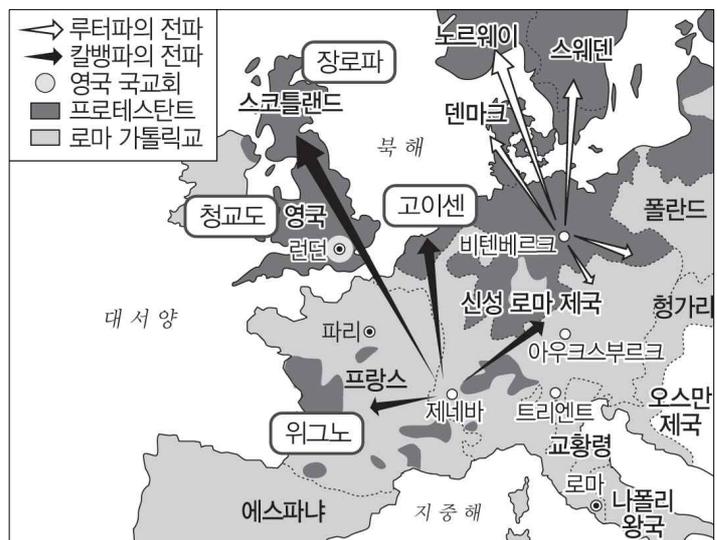
[영국의 종교 개혁]

01. 배경

- 헨리 8세(재위 1509 ~ 1547),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로 교황 클레멘스 7세와 대립
- 종교적 원인보다 ★정치적·경제적 동기

02. 전개

- ★수장법(Act of Supremacy, 1534)
: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임을 선포
: 수장령에 반대하던 토마스 모어 처형
: ★수도원 해산, 교회의 토지와 재산 몰수
- 가톨릭교회 부활 운동 전개
: 메리 1세(재위 1553 ~ 1558)
↳ 수장법 폐지
- ★통일법(Act of Uniformity, 1559)
: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영국 국교회 확립
- 가톨릭교 의식에 신교 교리 결합



<유럽의 종교 분포(16세기)>

근대 인식의 각성 - 종교 개혁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01. 가톨릭교회 내부의 개혁

- ★예수회(1534)
 - : 에스파냐의 신부 로올라가 설립
 -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 전개

02. ★트리엔트 공의회(1545 ~ 1563)

-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하며 신교 확산 방지
- 교회의 내부 정화를 통한 악습과 폐단 시정 노력
- ★4세기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권위 인정
-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
 - : 종교 재판소 설치(1542 ~)
 - : 금서 목록 작성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

교황(바오로 3세 ~ 바오로 4세)의 주재로 3회기에 걸쳐 열린 공의회는 면벌부(免罰符)를 사고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세례와 미사의 중요성 및 사제의 독신 의무를 역설하는 한편, 라틴어 불가타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교(로마 가톨릭) 對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

01.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 ~ 1598)

- 부르봉 가(家)의 위그노 ⇄ 기즈 가(家) 중심의 가톨릭교도
- ★앙리 4세(재위 1589 ~ 1610), 낭트 칙령(Edict of Nantes, 1598)
 - :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 허용 → 프랑스 산업 발달의 계기 마련

02. 네덜란드 독립 전쟁(1568 ~ 1648)

- 신항로 개척 이후 경제력의 성장으로 무역과 상공업 발달
-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화 정책
 - : 고이센(Geusens) 주도 아래 에스파냐와 전쟁
 - : 북부 7개주[위트레흐트 동맹(Union of Utrecht, 1579)]의 독립 선언(1581)
 - :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독립 달성

03. 30년 전쟁(1618 ~ 1648)

- 신성 로마 제국 내(內) 보헤미아 신교도의 반란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 영국 · 덴마크 · 스웨덴 · 프랑스(신교) ⇄ 보헤미아 · 에스파냐(구교)
- ★베스트팔렌 조약(1648)
 - : 개인의 신앙 자유 인정 → 칼뱅파 인정
 - : 스위스 · 네덜란드 독립 승인, 프랑스의 알자스 · 로렌 지방 차지
 - :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분열 심화

▶베스트팔렌 조약

조약은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 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윽려 조약 체결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이 참여하였던 3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 종교 개혁

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제27조 그들은 헌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를 듣고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티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제86조 오늘날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어쩌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하여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② 칼뱅의 예정설(『수능 특강』, p.85)

일찍이 신계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과벌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또 반대로 신계서 지옥에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뜻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 알 수 없는 신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도 공평하다. - 『크리스티교 강요』

③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신이 크리스티 교도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 그들은 부(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악하다고 여기면서도 직업 노동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로 여겼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세속적 직업 노동을 조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금욕적 수단으로 삼고, 또 그것을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여긴다는 것이다.”

④ 헨리 8세, 수장법(1534)

“국왕 폐하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실제로 또 법적으로도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이시다. ……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수장의 권위에 달려 있는 모든 영예, 존엄, 지위, 재판권, 특권, 면제권, 수익, 재화를 소유하며 향유한다. …… ”

▶ 각 국의 종교 개혁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개념 Check

- ① 보카치오는 『_____』에서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 ② 이탈리아의 ()는 『군주론』을 저술하여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③ 에라스무스는 『_____』에서 교회의 형식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였다.
- ④ 루터는 교황청의 () 판매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 ⑤ 1555년 () 화의가 체결되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되었다.
- ⑥ 칼뱅은 『_____』에서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⑦ 1534년 헨리 8세의 ()에 따라 영국 교회가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 ⑧ 30년 전쟁의 결과 () 조약이 체결되어 칼뱅파도 인정받게 되었다.

실전문제

01

밑줄 친 ‘조약’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다. 오랜 전쟁 끝에 조약이 체결되어 칼뱅파가 공인받으면서 종교적 평화가 찾아왔다.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인정되는 등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에서는 새로운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가)	(나)	(다)	(라)	(마)
95개조 반박문 게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	낭트 칙령 발표	청교도 혁명 시작	크롬웰의 호국경 취임
명예혁명	발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6월 모의평가]

그는 인간의 구원이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어.

그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불렀어.



- ① 유토피아를 저술하였다.
- ②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 ③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 ④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 하였다.
- ⑤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